



**Board of Directors of PCUSA, A Corporation
Commit themselves and the Entity to Care for *All* of God's People**

In 1818, at the end of the second decade after the forma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 Corporation, the General Assembly resolved that “[w]e consider the voluntary enslaving of one part of the human race by another, as a gross violation of the most precious and sacred rights of human nature; as utterly inconsistent with the law of God.” As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rp.” today, we believe that a continued voluntary oppression of any one part of the human race by another on any grounds of racial difference is no less utterly inconsistent with the law of God.

A Corp. has a unique role in handling secular business for the General Assembly, its entities, and others in the church. But A Corp. is not only a corporate entity providing accounting, banking, legal, property, and risk management advice and services. It is a part of the church and a tool of God's word in the world. It is particularly well positioned to watch, listen, and act at the intersection of business and church to help further God's plan and seek justice for all.

In this time of deep anxiety due to COVID-19, many of our brothers and sisters face a future which seems empty of hope for relief from illness, death, and economic loss. At the same time, our country continues to be divided by racial prejudice and unrest. These conditions heighten the importance of the work of A Corp. to ensure a strong church community for our Presbyterian family. As a Board of members and officers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we have a responsibility to care for *all* of God's people. We commit ourselves and A Corp. to do so, both in internal ecclesiastical relationships and in external corporate relationships. We ask all of our colleagues and mission partners to join us in this daily effort to bend our history always towards justice.

**미국장로교, A 코어퍼레이션 이사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돌보는데 헌신함**

1818년, 미국장로교, A 코어퍼레이션이 형성된지 20년이 되어가는 해에, 총회는 “우리는 한 인종의 일부를 다른 인종이 의도적으로 노예화한 것을 가장 소중하고 신성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상당한 위반이며,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완전한 위배로 보기로 했다”고 결의했다. 현재의 “A 코어퍼레이션”의 이사회로서, 우리는 인종적 차이에 근거해 한 인종이 다른 인종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A 코어퍼레이션은 교단 내의 총회, 산하 조직체, 기타 기관들의 세상 업무를 고유하게 다루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A 코어퍼레이션은 단지 회계, 은행업무, 법률 서비스, 자산 자문 서비스, 위기관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체만이 아니다. 이는 교회의 일부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이다. 특별히 이는 세상과 교회의 교차 영역에서 보고 듣고 행동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어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실행하고 정의를 추구함에 도움이 된다.

COVID-19 로 인한 깊은 불안의 시기에, 우리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질병, 죽음, 경제적 손실로 인해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우리 나라는 인종 편견과 갈등으로 인해 계속 분열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 장로교 가족을 위해 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A 코어퍼레이션의 직무의 중요성을 고양시키고 있다. 미국장로교 회원 및 직원들의 이사회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교회적 관계 속에서, 외부적으로 법인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데 우리 자신과 A 코어퍼레이션을 헌신한다. 정의를 향해 역사를 수정하려는 이 지속적 노력에 우리의 모든 동료들과 선교 협력자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Adopted on June 22, 2020

Board of Directors, Presbyterian Church (U.S.A.), A Corporation

Bridget-Anne Hampden, Co-Chair

Christopher Mason, Co-Chair

Samuel Bonner

Rev. Cynthia Campbell

Julie Cox

Sinthia Hernandez-Diaz

Thomas McNeill, Jr.

Rev. Thomas Priest

JoAnne Sharp

Rev. Bill Teng

Carol Winkler